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오늘 오전에는 사이버 보안 세미나가 있었습니다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미 제조업 경기가 4년 만에 대폭 확장…고물가 대응으로
- Bloomberg: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변동 없어…지난주 20만 9천 건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국채 금리 급등으로 각국 금리 인상할 듯

[이란 전쟁]
- Bloomberg: 이란,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영구적인 통행세 논의

[오일]
- CNBC: 오일 급등…이란 “우라늄 반출하지 않는다” 보도에

[인공 지능]
- Bloomberg: 엔비디아 “정부와 다른 기업들에 매출 늘리겠다”

[주택]
- Bloomberg: 높은 국채 금리로 주택 모기지 완화 기미 없어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Manufacturing Expands Most in Four Years on Stockpiling Rush
미 제조업 경기가 4년 만에 대폭 확장…고물가 대응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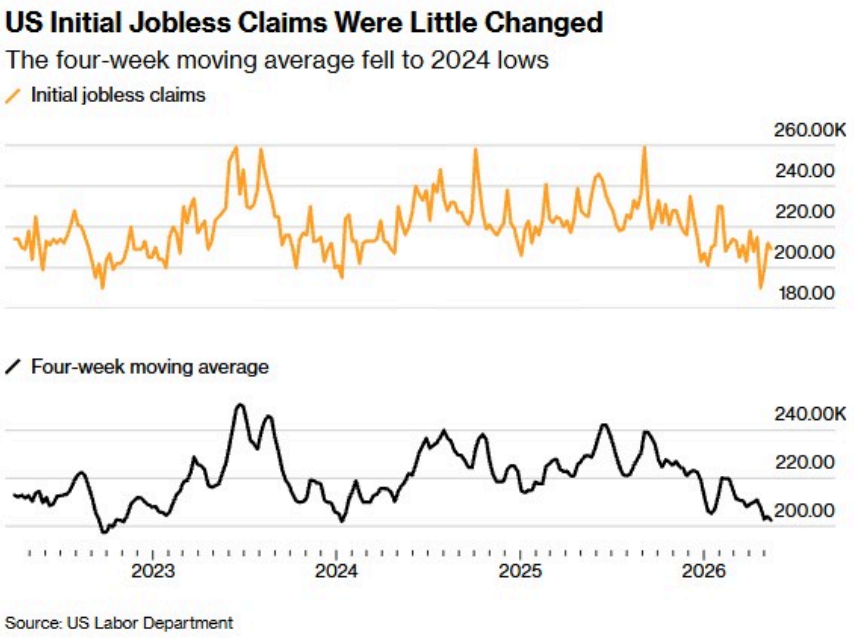
- 미국의 5월 제조업 활동이 이란 전쟁에 따른 상승 압력에 대응하려는 구매 기업(buyers)의 사전 구매에 힘입어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확장됐다.
- S&P 글로벌이 발표한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 예비치는 전월 대비 0.8포인트 상승한 55.3을 기록했다.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경기 확장을, 아래면 위축을 의미한다.
- 한편,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등에 지불하는 투입 가격지수는 11포인트 이상 폭등하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. 이와 함께 공급업체의 납품 소요 시간 역시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기사

Blooberg: US Jobless Claims Were Little Changed at 209,000 Last Week
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변동 없어…지난주 20만 9천 건

- 지난주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변동이 없었다. 최근 일부 회사들의 감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고는 계속 둔화하고 있다.

-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국에 따르면 5월 16일에 끝나는 주간에 실업수당 청구 신청 건수는 3천 건 줄어든 20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.
- 실업수당을 받는 전체 건수는 1백78만 건으로 약간 증가했다. 여전히 현재 미 고용 시장은 '낮은 고용과 낮은 해고'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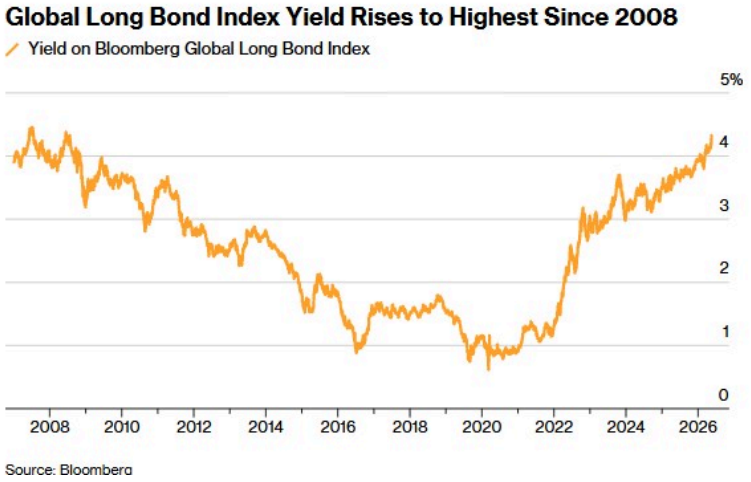


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How Bond Yield Surge Will Impact Economies, Markets
국채 금리 급등으로 각국 금리 인상할 듯

-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. 이란 전쟁 발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부 부채 부담으로 투자자들이 더 높은 국채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.
-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인 5%를 돌파했고, 영국은 약 30년, 일본은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.
- 금리 급등 원인은 이란발 갈등이다.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와 가스가 폭등하면서 연료, 플라스틱, 비료 등 원자재 가격들을 밀어 올렸다.
- 결국 시장은 미 연준 등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고자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게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.



기사

[이란 전쟁]

Bloomberg: Iran in Talks With Oman Over Permanent Toll System for Hormuz
이란,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영구적인 통행세 논의

-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통제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오만과 상설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논의 중이다.
- 이란은 미국이 이란 항구 해상 봉쇄 해제 전까지 해협 재개방을 거부하면서 통과 선박에 대한 새로운 룰을 마련하고 있다.
- 반면 미국, 유럽, 걸프 아랍국들은 이 해협을 국제 수역으로 보며 이란의 통제와 항해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에 반대하고 있다.

기사

[오일]

CNBC: Oil prices jump more than 3% after Iran supreme leader says uranium must remain in country
오일 급등…이란 “우라늄 반출하지 않는다” 보도에

- 이란 최고지도자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에 오늘 목요일 유가가 급등했다. 이는 미국과의 평화 협상을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.
- 이날 오전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약 4% 오른 배럴당 101.96달러,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약 3% 상승한 108.34달러를 기록했다.
- 로이터 통신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“농축 우라늄의 국내 보유”를 명령했다고 전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가 전쟁의 핵심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.

기사

[인공 지능]

Bloomberg: Nvidia Tells Skeptical Investors AI Is Ready to Go Mainstream
엔비디아 “정부와 다른 기업들에 매출 늘리겠다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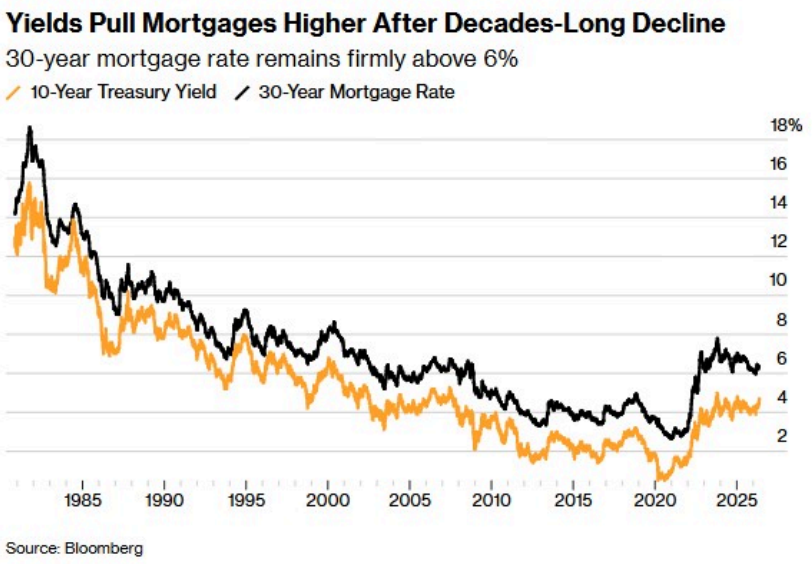
-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한 데이터센터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, 앞으로는 다른 기업들과 각국 정부가 AI용 칩과 컴퓨팅 제품의 더 큰 고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.
- 현재 엔비디아는 AI 컴퓨팅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려는 다른 반도체 회사들과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. 구매 업체중에 자체 칩 개발도 늘고 있다.
- 어제 수요일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의 매출은 4월 26일까지의 최근 3개월 동안 85% 증가해 816억 달러를 기록했다. 회사는 분기 배당금도 늘리고, 8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다.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크지 않았다.

기사

[주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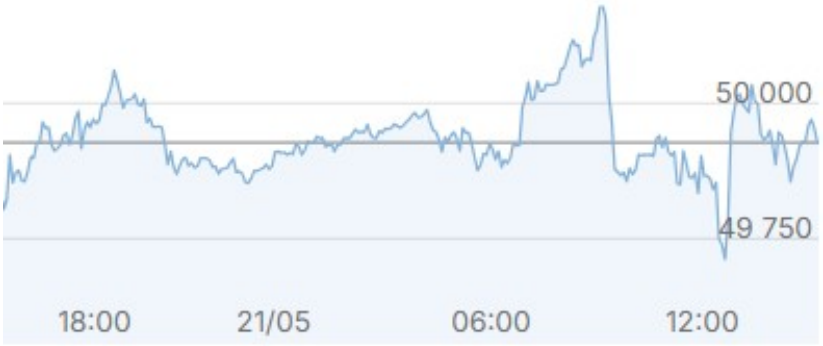
Bloomberg: Home Buyers Hammered as War-Fueled Bond Rout Drives Rates Higher
높은 국채 금리로 주택 모기지 완화 기미 없어

- 저금리 주택담보대출(모기지) 시대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.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4.6%까지 오르고 30년 만기 평균 모기지 금리가 6.5%를 넘어서 구매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가중시키고 있다.
- 고금리 기조로 바뀌다 보니 주택 시장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됐다.
- 즉,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저금리 대출에 묶여 이사를 꺼리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됐고,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드림은 실현하기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

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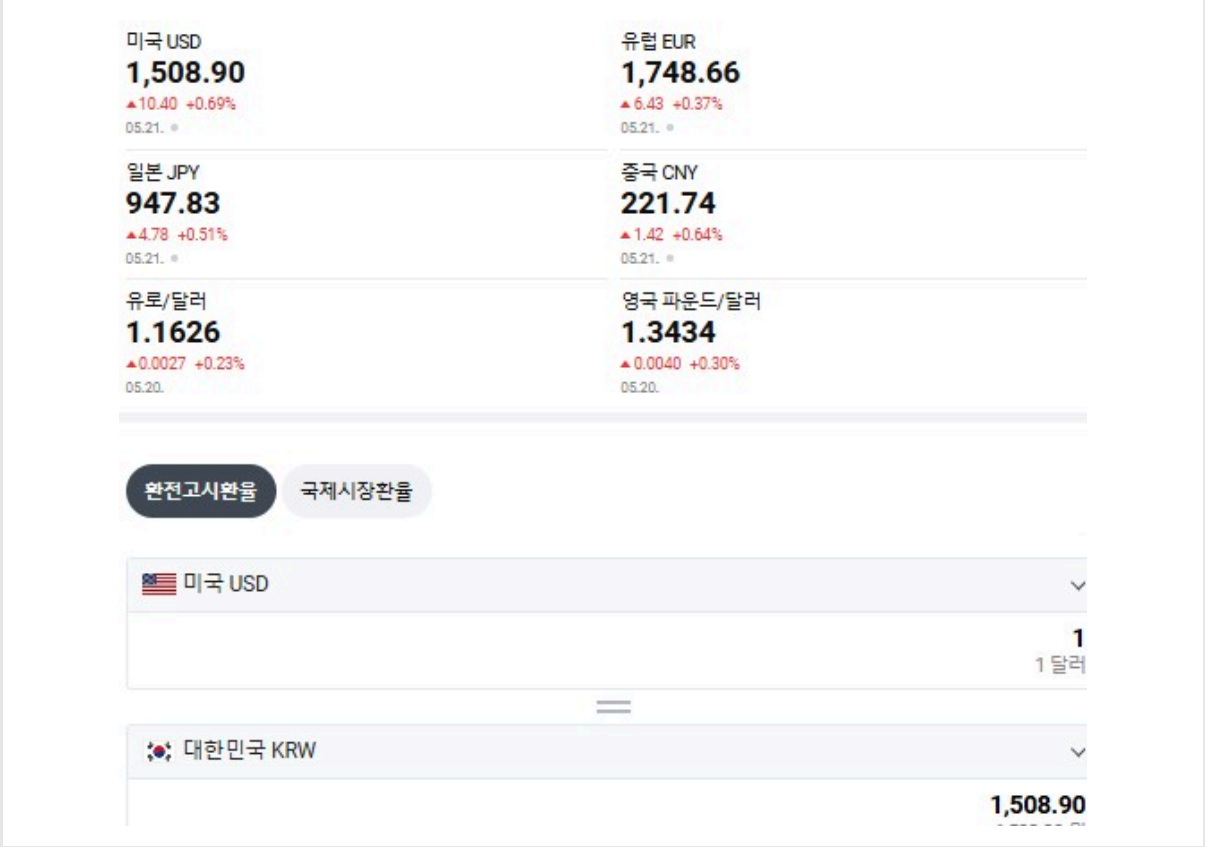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49,918.50	-90.8	-0.18%
US 500	7,409.00	-23.9	-0.32%
Dow Jones	49,918.90	-90.45	-0.18%
S&P 500	7,408.55	-24.42	-0.33%
Nasdaq	26,156.77	-113.59	-0.43%
S&P 500 VIX	17.25	-0.19	-1.09%
Dollar Index	99.355	+0.250	+0.25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0/32	5.128	0.000
10-Year Note	4.375	-1/32	4.609	0.017
7-Year Note	4.125	-1/32	4.445	0.025
5-Year Note	3.875	-1/32	4.285	0.031
3-Year Note	3.875	-1/32	4.174	0.044
2-Year Note	3.75	-1/32	4.111	0.043
1-Year Bill	0	1/32	3.819	0.032
6-Month Bill	0	0/32	3.744	0.016
3-Month Bill	0	0/32	3.657	0.004
1-Month Bill	0	0/32	3.608	0.005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